

처벌 두려워 中에만 판매... 마스크는 이미 '투기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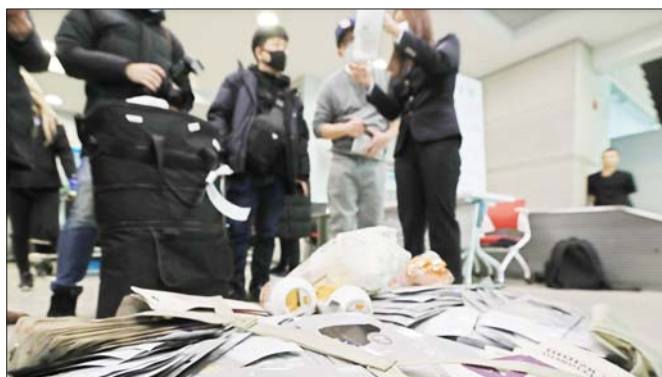
〈매점매석〉

마스크 확보 현장에선 어떤일이?

A업체 “KF94마스크 40만개 확보”
中 공무원증 등 신원확보해야 거래
“단가 1500원짜리 2400원에 판매
코로나 지속면 3000원 넘길지도”
식약처 홈페이지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걸려 있다.



6일 인천국제공항 3층 세관 검사대에서 출국 예정자들이 가방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이 여전히 일부 업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A업체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중년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KF94 마스크를 주문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나”라고 대답한 뒤 잠시 침묵을 유지한 채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 거래처를 통해 주문을 요청받았다”며 상황을 구구절절 늘어놓자, 그제야 말문을 트기 시작했다.

이 업체 이사인 B씨는 “1500원짜리 KF94 마스크를 40만 개 확보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40만 개 KF94마스크는 한국이 아닌 중국을 위해 준비된 마스크였다. 그는 “처벌 이슈를 피하고자 당장 확보한 재고는 국내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중국에 수출할 때만 거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판매용 KF94는 확보한 상태다. 예약할 경우 한 달 뒤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모든 거래 상담은 신원이 확보된 뒤 가능했다. 최소주문거래량, 거래가격, 지급방법 등 모든 거래정보는 거래자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 중국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신원인지 확인한 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명함을 가져가면 되느냐고 묻자. “그냥 명함으로는 안된다. 중국 공무원증이나 중국 정부로부터 수입을 허가받았다거나 또는 중국 사업과 관련됐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에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실물을 보고 싶다고 하자 그는 “사무실에서 면담한 뒤에만 공장에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함 속 공장 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이라고 적혀있었으나 그는 “보안상의 문제로 공장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화 중에도 여러 번 문의자의 신원과 거래목적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를 제보한 관계자는 “현재 KF94마스크가 ‘노인들의 비트코인’으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측에서 알아봤을 때 단가가 2400원까지 올랐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하는 한 3000원도 넘길 거란 얘기가 있다. 지금도 하루에 한 업체당 몇 억씩 거래가 오간다. 최소 단위가 9억 원이란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하게 정부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사무실에는 실물이 없고 모든 업무는 문자만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식약처 신고센터 신고 ‘붐물’

“마스크 가격이 터무니없네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 동났다고 연락도 없이 취소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붐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마켓 등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다수다.

정부는 국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마련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코로나 검사대상 확대... ‘中 간접 없어도’ 시행

대책본부 ‘의사 소견’ 있으면 검사 ‘동남아 여행 후 2주간 관찰 필요’

앞으로는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부터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최근에 환자가 유입된 태국, 싱가포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확대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까지 의심환자 기준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

나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에 제한돼 있었다.

최근 환자가 유입된 국가가 태국, 싱가포르 까지 넓어진다 지역사회 감염도 확산된데 따른 조치다.

이제까지 국내 확진자 23명 가운데 해외 방문자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 방문자는 10명뿐이다. 확진자 중 중국 이외 ‘제3국’을 방문한 환자는 싱가포르 2명, 태국 2명, 일본 1명 등 총 5명에 달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2주간 가능하면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머물며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치료제 중 신종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해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국민 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 대응 신속진단제 개발 ▲인공지능 기반 신종 코로나 치료제 재창출 ▲신종 코로나 위해도 평가를 위한 연구 ▲신종 코로나 발생지 역학정보와 자원 수집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면역학적 반응원리를 기반으로 진단검체 전처리, 항원진단기술, 시약 개발 및 임상학적 성능평가 등 방역현장에서 신속하게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두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

치료제 중 신종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신속히 선별하고, 치료제를 확보하는 과제도 수행한다.

정부는 또 바이러스의 증식특성, 병원성, 감염력, 항원성, 면역력 등 고유 특성을 분석해 방역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감염환자의 처치 및 향후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의 바이러스 R&D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관련자원을 수집·제공하기로 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제를 개발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기존 효능이 입증된 약 중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효과가 있는 약을 선별해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도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GS홈쇼핑 직원, 신종코로나 확진 사육 폐쇄

직원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처리 생방송 중단하고 재방송으로 대체 최소인력만 남고 소독·방역 조치

직원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되자 GS홈쇼핑이 6일부터 생방송을 중단했다. 본사 사육도 폐쇄했다.

GS홈쇼핑은 오는 8일 오전 6시까지 3일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사 사육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TV홈쇼핑 방송은 생방송을 중단하고 모두 재방송

으로 진행한다. 회사는 이 기간 소독과 방역 조치에 집중한다.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급휴가를 가게 된다.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 인력만 당직 체제를 구축해 돌아가면서 출근한다.

이 회사에는 국내 20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41세 여성이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환자는 5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2일 확진된 15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같은 건물에 살

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GS홈쇼핑에 따르면 20번 환자는 지난달 30일까지 본사에 출근했고,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했다.

GS홈쇼핑 측은 “이번 조치는 금일 확인됨에 따른 즉시 조치로서, 관할 영등포구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GS홈쇼핑은 해당기간동안 본사 사육 전체에 대한 철저한 추가 소독은 물론 직원들의 의심 증상 점검 등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GS 홈쇼핑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이어 “앞으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민적인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주요 바이러스 감염력

감염증 환자 1명
재생산수 1: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만 바이러스를 감염시킴. 높을수록 감염력 강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홍콩대 연구팀 *1월30일 발표
최소 2.24~최대 3.58명

세계보건기구(WHO) 1월24일 추정
1.4~2.5명

*1월10~24일 중국 내 신종코로나 환자 발생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유행성 감염증 전체 기준

메르스(MERS, 중증호흡기증후군)
0.4~0.9명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2015년 국내 메르스
4.0명

환자 1명당 3.6명 전염

메르스 최대 0.9명, 사스는 4명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이 만들어내는 최대 감염자 수가 3.6명까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재생산지수는 각각 0.4~0.9명, 4명이었다. 다만, 메르스의 경우 2015년 한국에서 유행할 당시만 보면 재생산지수가 4명에 달했다.

6일 국제감염질환저널 최신호(1월 30일)에 따르면, 홍콩대 연구팀은 지난 달 10~24일 중국 내 신종코로나 환자 발생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산지수를 최소 2.24명에서 최대 3.58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재생산지수를 1.4~2.5명으로 추정했던 것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세경 기자